

◀기쁜 우리 날들▶ 시골로 말입니까?

배평모 작가



10여년 전 딸을 거창에 보낼 때, 나와 내 아내의 결심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아해 하면서 하는 질문이었다.

"거창엘 왜 보냅니까?"

한참 8학군이라는 강남 모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전학서류를 갖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더니

"거창이 어딘데요?" 하고 재차 물었다.

그리고 "시골로 말입니까?"했다.

그렇다. 시골이었다. 4시간 남짓 가는 거리인데 아직도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 한적한 길을 차가 툭툭거리면서 달려갔다. 우리 세 식구 마음은 "이대로 서울로 돌아갈까..."였다.

그 아이가 그 시골 거창에서 3년을 지내고 경계 그을려서 선머슴애처럼 나타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오랜만에 내 고집이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기쁨을 맛보았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살이는 험슬리는 삶과 험쓰는 삶이 있습니다. 밝게 험쓰는 이들이 사회를 밝힙니다.

기후... 박정희... 신민당

◀그땐 그랬지▶ 대통령 선거 벽보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선거벽보만으로도 큰 선거유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고무신을 돌리거나 막걸리 대접이 종종 있어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오명도 붙었습니다. 그 때는 문맹자들이 많은 시절이어서 후보의 기호도 작대기로 표시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시절의 후보자들은 모두 세상 떠났고 그때의 젊은 이들이 새로운 후보가 되어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4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12월 2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뒷걸음



따스한 봄날, 봄나들이 나온 아기가 놀이터에서 아장 아장 걷습니다. 엄마는 뒷걸음치며 아기에게 어서 이리 오라고 손뼉을 칩니다. 아이는 환한 웃음을 머금고 엄마를 향해 뒤뚱 뒤뚱 걸어갑니다.

연인끼리 헤어져야 할 시간에도 서로 못내 아쉬워 뒷걸음치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모내기 철이 되면 농부들은 뒷걸음 치며 하나하나 정성껏 모를 눈에 심습니다. 그러면 뒷걸음 치는 진흙발자국을 따라 초록이 느릿느릿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 앞에서 때로 뒷걸음을 치며 걷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실 때 뒷걸음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아기가 염려된 엄마처럼, 때론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연인처럼, 푸른 싹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는 앞을 보고 가지만 주님은 언제나 뒷걸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기도하고 행동하자
기도와 행동은
마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다

◀인품따라 행하기▶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당당하라
가진 것이 없다고
인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495장	다 같이
기 도 Pray		현석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시편 1:1-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버리는 것이 있어야 행복을 누린다	김성국 목사
특 송 Hymn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윤형권 집사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980 총액: \$ 406,702.70

◆12월 예배위원◆

◆12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25	최재학		현관:권광순 정희자 Hall 입구: 노은숙 임혜자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2	현석호		
9	고성일	최현철 서재오	
16	권광순	항촌직	
23	김교섭		
25	김영길		
30	노은숙		

	주일 & 예배	모임 행사
2		안수집사회(3)
16		정기구역예배(7)
23	성탄주일	연말당회(8)
25	성탄절	선교회총회(16일)
30	송년주일	성탄축하행사(23)
31	송구영신예배	세례식(25)

『교 회 생 활』 2007 신앙생활: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 교우소식
<이사> 박덕철, 정혜숙 집사. ☎ 524-6767 74 B Vincent Ave. Remuera
<축하> 정성수 집사. 『2012 여수 세계엑스포』 유치 지원단으로 참가(프랑스)하여 유치에 성공시킨 후 귀국.
<정덕수 장로> 입원 검사결과(한국) 약물치료. <한국연락처> 010-5177-7631
- 정기구역예배: <일시> 7일(금) 저녁
*금년도 마지막 구역예배입니다. 1년간 믿음의 교제를 나눈 구역식구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모임: 안수집사 연말 “감사의 모임” <일시> 12월 3일(월) 저녁 7:30분
- 연말당회 <일시>: 다음주일(9일) 예배 후
- 나무십자가성가대 수련회 <일시> 8일(토) 10am-7pm
<장소> 토파즈. 626 Coatesville Highway. Albany ☎ 415-2177
- 세례, 유아세례 <세례일> 12월 25일(성탄절) <신청> 담당 구역장
<신청자격> 유아세례: 만 4세 이하 어린이. 세례: 교회출석 6개월 이상 교우
*구역장: 구역 내 세례, 유아세례 대상교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5여선교회 월례회(예고) <일시&장소> 11일(화) 오후 1시. 박숙영 집사 자택
- 갈보리 뉘시동호회 모임(예고) <일시> 12월 11일(화) 오전 <문의> 박일영 장로
*금년 마지막 동호회 모임입니다. 시간 가능한 교우께서는 함께 뉘시의 즐거움과 신선한 힐링의 즐거움을 누리며 정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착한 시인들▶ 사랑의 이율배반 이정하

그대여
손을 흔들지 마라.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떠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다시 돌아오면 그만이었지만
남아 있는 사람은 무언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가
기약도 없이 떠나려면
손을 흔들지 마라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면 눈 감은 채 “응”하고 대답해야 친구다. 그렇게 모처럼의 게으른 모습을 보여 주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너희 어머니께서 해 주시던 그때의 반찬이 참 맛있었다’고 말할 때 너와나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한다. 서로의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워져야 친구다.
친구들이 떠나며 TV 위에 몰래 올려놓은 편지, 아내는 읽으며 우는데 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마저 울면 친구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저들 떠난 방에서 오랫동안 안 몸살 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